누군가 인류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SF영화를 보게 하라

20160042 구인용

“악의 화신에게 공주가 납치된다. 이를 알게 된 정의로운 주인공은 스승의 도움을 받아 용사로 거듭나고, 모험의 끝에 악의 화신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한 뒤 공주와 결혼한다.”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배경을 우주로 두고 주인공에게 광선검을 들려주자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프랜차이즈가 탄생했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영화사에 빼놓을 수 없는 수작으로 꼽히며, 최근 개봉한 속편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2015)>는 북미 역대 흥행 순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4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축적한 두터운 팬층을 자랑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영화 역시 SF 영화 <아바타 (2009)>가 차지했다. 공상과학, 영어로는 SF(Science fiction 장르) 장르는 수많은 영화 장르 중에서도 단연 가장 사랑받는 장르 중 하나이다.

미래를 배경으로 하여 과학과 기술에 입각해 상상을 풀어내는 SF 영화 장르는 사회와 과학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가장 가시적인 산물이기도 하다.

SF 영화의 주제는 사회가 과학을 마주할 때 갖는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SF 영화에 드러나는 미래의 모습은 다양하다. 과학 기술을 통해 질병이나 사회의 여러 모순을 극복하고 편리한 삶을 사는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 세계관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술 발전의 명과 암을 함께 다룬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반영한 테크노필리아 (Technophilia), 과학 기술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을 드러내는 테크노포비아 (Technophobia)라고 부른다.

SF영화를 통해 감독이 드러내는 과학에 대한 견해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함께 살펴보면 SF영화는 시대에 따라 과학에 대한 대중의 주된 정서와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전 세계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비록 총알과 피가 흐르는 전쟁은 끝이 났지만,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세계 2차대전 직후 등장한 SF영화가 방사능 피해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다루는지,

당시 미국 SF영화를 지배하는 설정과 일본의 괴수물에 대한 이야기)

(냉전시대에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과학자들이 영웅으로 추앙받기까지의 이야기)

(현대, 인공지능과 디지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F영화는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견해를 녹여내며 소재로 쓰이는 과학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든다. 그러나 가끔, SF영화는 반대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과학자의 입을 빌려 주장을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TV 시리즈 <스타 트렉>이다. <스타 트렉>에서 과학 기술은 작가들의 상상을 실현하는 도구로써 활용될 뿐,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지극히 사회적이다.

(인종차별을 다루는 스타트렉 에피소드)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스타트렉 에피소드)

(원시적인 행성 원주민들과의 갈등을 통해 인간의 탐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 “아바타”)

(마무리)